2023. 03 | Vol. 103 월간 지방시대

MAGAZINE

GLOCALISM

GLOCALISM MAGAZINE Vol. 103

지속가능 “지방정부” 실현

Empowering Sustainable Metropolitan and
Provincial Government Administration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GOVERNORS ASSOCI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GLOCALISM

GLOCALISM
MAGAZINE *about Gyeongbuk*

2023. March **Vol. 103**
지속가능 "지방정부" 실현

01
이철우의 지방시대
지방시대란 자신이 태어난 곳에서
꿈을 펼치고 정주하는 국민행복시대

07
경상북도 지방시대 정책우수사례
09. 지역산업기반 인재양성체계 구축
09. 대학혁명
"대학 이름만 남기고 싹 다 바꾼다"
10. MOU단계부터 대학-도·시군
합동의 기업지원, 굿스타트팀
11.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취업 잘되고
더 행복하게 사는 시대, 고졸 청년
성공시대
11. 지방 가 산다, 지방전성시대,
K-로컬 7대 프로젝트

13
경상북도 주요 정보
15. 경북의 볼거리
17. 축제와 문화 행사
19. 2023 전국생활체육대축전

21
글로컬 이노베이터를 찾아서 경상북도 편
SK실트론 장용호 대표

27
지방시대, 프랑스 편·일본 편
27. 프랑스를 『스타트업 네이션』으로 만드는
레지옹(광역) 정부
33. 기업간 연계로
〈베니이모(자색고구마) 카레〉개발

39
지방시대, 중앙정부 정책동향
新성장 4.0 전략
'23년 추진계획 및 연도별 로드맵

경북이 주도하는
지방시대

지방시대란
자신이 태어난 곳에서
꿈을 펼치고 정주하는
국민행복시대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이철우의 지방시대

대한민국은 인재, 자본 등 모든 것을 수도권이 독과점하고 있다. 지방 청년들은 수도권에 안가면 마치 낙오자처럼 생각하는데 정작 서울 가면 경쟁이 극심하고 집값도 높아서 결혼도 어렵고 출산도 꺼리게 된다. 우리 국민들이 교육과 일자리를 찾아 온 나라를 떠도는 유목민 생활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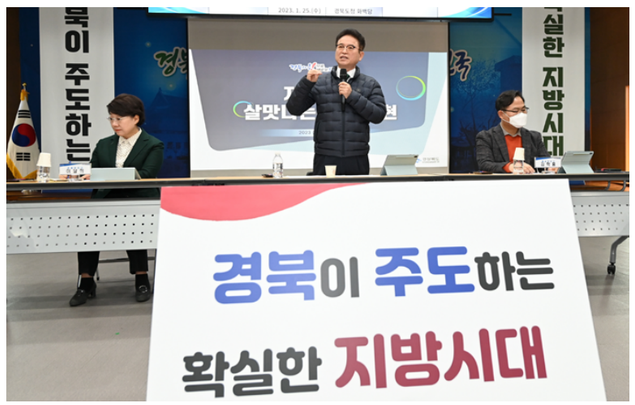
대한민국을 초일류 국가, 5만 불 시대로 만들려면 인구 500만 명 단위 특화산업 기반으로 지방 곳곳을 글로벌 경제권으로 만들어 국가발전에 다양한 날개를 달아야 한다. 국민들은 자신이 태어난 곳에서 꿈을 펼치고 유목민이 아닌 정주민이 되도록 해야 국민행복시대가 열린다. 그것이 소위 '지방시대'다.

지방시대를 열려면 지방정부 스스로 역사, 문화, 경제와 인적 경쟁력을 가지고 대담한 발전전략을 구상하고 실천해야 한다. 중앙정부는 국방, 외교, 통일 문제와 국가표준 등 꼭 필요한 일만 하고, 나머지는 범부처가 협력해서 각 지방의 특색 있는 발전을 지원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지방 정주시대, 지역 인재양성과 인프라 구축으로!

경상북도는 올 1월 1일 조직개편을 통해 전국 최초로 유일하게 지방시대정책국을 신설하여, 그 간 분절되어 있던 청년, 교육, 인구, 외국인 지방정책들이 유기적으로 작동하여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배치했다.

대학은 자연스럽게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다. 지자체와 대학이 협업에 성공하면'지역 인재양성 → 지역 내 취·창업 → 결혼 → 출산 → 소멸 극복'으로 이어지는 지역 발전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대학은 이름만 남기고 다 바꾸는 '대학 대전환'을 추진한다. 지역대학은 초거대 인공지능(AI) 인프라를 기반으로 기업과 교육과정을 공동 설계하고, 다양한 실증기반의 연구논문 지원을 통해 지역기업과 지자체와 공생 협력하는 대학으로 육성한다.

또한,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성공할 수 있는 '고졸청년 인식 대전환'도 추진한다. 고등학교 교과과정에 기업연계 교과목을 개설하고, 기업 실습을 강화해 바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고졸 청년 생애단계별 종합대책인 「고졸청년 성공시대 프로젝트」를 핵심 대표사업으로 추진한다. 고졸 취업자 학위취득 지원, 지역기업 2년 근무 후 대기업 수준 임금 보전을 위한 지역 청년우대카드 제공, 군복무 후 복귀 시 300% 상여금 지급, 월세 및 전세보증금 지원 등 주거지원, 결혼장려금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외국인 광역비자'를 도입해 외국의 우수 인재가 모이는 '아시아 실리콘밸리로 대전환'을 추진한다. 직접 CIS, 동남아 등 해외로 나가 외국 우수 IT 대학원생, 고등학생 등을 유치하고, 이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법무부와 경북도립대가 공동으로 세종학당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할 계획이다.

지방시대 성공의 선결 조건, 지역 산업 육성으로 힘 보태야!

우선, 경북은 농업과 농촌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 문제들을 혁신하는 농업 대전환을 추진한다.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있는 상주를 연구개발, 인력양성과 벤처창업의 거점으로 육성해서 '국가 농업테크노 폴리스'로 만들 예정이다. 또한 '디지털 혁신 농업타운'을 통해 생산성을 대폭 증대시켜 '지주를 주주'로, '청년농부를 전문경영인'으로 키우고, 이를 농업대전환의 시범 모델로 확산해 '제2의 새마을 운동'으로 만들어 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북 내에 권역별로 특화산업을 구축하고 전 분야에 초거대AI, 메타버스 등 디지털플랫폼을 통한 산업 혁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올해 메타버스 과학국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남부권에는 구미에 반도체, 포항에 2차전지를 중심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추진하고 경주·영천·경산에 밀집한 자동차부품 산업도 특구 유치와 일자리 협약 등을 통해 모빌리티 산업벨트로 육성한다.

동해안권에는 '국가 청정에너지 산업벨트'를 구축한다. 경주는 SMR특화단지, 울진은 원자력 기반 수소생산 실증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해 에너지 기업의 투자유치에 집중한다. 북부권은 SK바이오사이언스의 확장과 산업용헴프 규제자유특구를 기반으로 바이오 산업의 메카로 만든다. 특히, 백신의 재료가 되는 세포 배양산업 육성 또한 적극 추진한다.

확실한 지방시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관계 재편부터!

국가 권력구조 개편은 보통 대통령 임기나 이원집정부제 등을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개헌 추진이 만만치 않다. 우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를 재편하는 지방분권형 개헌부터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과 총리께서 지난 2월 1일 구미에 오셨을 때 제가 이렇게 말했다. 금오공대는 교육부가, 산업단지는 산업부가, 낙동강은 환경부가 관리하고 여기 뒷산에 나무 옮기는 것도 산림청이 허락한다. 지방정부는 대체 뭘 하라는 것인가. 지자체장들이 주도적으로 일하지 못하고 중앙부처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사정사정하는 것이 업무다. 이게 무슨 자치인가.

지방정부는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복지 증진에 힘써야 한다.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문화를 진흥시켜서 살고 싶은 지역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려면 경찰, 소방은 물론이고 교육 등도 지방이 관할하는 것이 맞고 중앙부처가 잔뜩 설치한 특별행정기관도 지방으로 이관해야 한다. 일을 추진하는 공무원 조직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수도권으로 인구와 모든 인프라가 집중되면서 수도권 출신의 국회의원이 과반을 넘었다. 법률과 예산을 결정하는 입법부에서도 운동장이 기울어지고 있는 것이다. 선진국처럼 양원제 등 지역 대표성을 높이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이 또한 헌법 개정이 쉽지 않다면 행정부 내에서 그런 장치를 마련할 것을 고민해야 한다.

확실한 지방시대 실현, 지방주도로 대한민국의 판을 바꾸어야 한다.

확실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지역발전 사업들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최우선이다. 지방도 수도권과 같은 일자리, 주거, 교통, 문화, 의료, 교육 등의 사회·문화적 기반을 확충할 균형발전 정책이 필요하다.

대통령도 '지방시대의 핵심은 지방정부가 충분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지역 스스로 성장 동력을 찾는 것이고 중앙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 이를 위해 먼저, 국정운영의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 중앙에 집중된 입법·재정·교육·조직의 권한을 지방에 부여하는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특히, 자치분권이든 균형발전이든 '보충성의 원칙'이 작용되어야 한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고 그 국민을 가장 가깝게 만나는 곳이 지방자치단체이다. 지역주민의 삶에 관한 모든 권한은 지방정부가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중앙정부의 역할이 지방정부가 할 수 없는 영역에서 보충적 임무를 수행

하는 것이 될 때 온전한 지역주도의 '지방시대'라 할 수 있다.

나폴레옹은 "오늘의 불행은 언젠가 내가 잘못 보낸 시간의 보복이다."라고 했다. 현재의 수도권 일극체제로 국민들이 행복하지 않은 오늘을 만든 것 역시 언젠가 우리가 잘못 보냈던 시간들의 대가일 것이다.

경북의 힘으로 오늘의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대한민국 미래의 희망을 창조하기 위해 확실한 지방시대를 제대로 여는 데 앞장서 나가겠다.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경상북도 지방시대 정책우수사례

지역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인재양성,
그 인재가 떠나지 않고 정주하는
경북의 지방시대를 위한 추진전략을 소개한다.

지역산업기반 인재양성체계 구축

윤석열 정부는 수도권 청년독과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중심 인재양성을 국정목표인 지방시대를 완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경북도는 지방대학의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하기 위해 지역 대학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넘쳐나는 혁신생태계를 구축키로 하고, 대학은 이름만 빼고 싹 바꾼다는 강한 의지로 기업과 함께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기업은 지역인재를 채용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북도의 '지역산업기반 인재양성체계 구축'은 도내에 기업이 투자를 결정하는 시점부터 기업이 필요인력을 제시하고 공장 준공단계에 맞춰 맞춤인력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대학혁명 "대학 이름만 남기고 싹 다 바꾼다"

지역에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은 현장에 바로 투입할 인력과 청년취업자들이 떠나지 않고 지역 정착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을 최우선적으로 요구하였다. 이에 도는 경북이 주도하는 인력양성체계 구축을 위해 경북 인력양성 민관협력회의를 개최하고, 도의 가용재원 10%를 10년간 투자하는,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 원칙을 발표하였다. 기업에서 필요한 인력을 도가 책임지고 전폭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교육대전환이 필요하다. 대학은 기업과 함께 교과목 및 실습을 공동 설계하며 프로젝트 기반의 공동연구 실시 뿐만 아니라 논문이 아닌 고용과 제품 사용화로 평가 받고, 고등학교는 관련 대학교수가 직접 강의하고 기업인턴과 실습을 강화하는 것이다.

MOU단계부터 대학 – 도·시군 합동의 기업지원, 굿스타트팀

지난 2월 SK실트론 경북 구미 투자MOU 체결에서 경북도와 구미시 2개의 행정기관과 금오공대, 구미전자고, 금오공고 3개의 교육기관, 에이테크솔루션, SK실트론, 원익큐엔씨, KEC, 엘씨텍, LIG넥스원, 한화시스템 6개의 기업체가 참가한 최초의 지역산업기반 인재양성체계를 구축하였다.

행정기관은 교육혁신과 친기업적 지역정책을 마련하고 교육기관은 기업체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기업체는 지역산업경쟁력 강화와 지역을 적극 채용하는 것이다. 나아가 행정기관은 교육기관의 인재양성을 지원하고 기업체엔 규제완화와 근무자의 정주여건 개선에 적극 나서는 것이다. 행정기관, 교육기관, 기업체와 굿스타트팀을 만들어 세밀하고 밀착적인 정책을 만들기로 했다.

Good Start Team

행정기관	교육기관	행정기관
교육혁신 지역정책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지역산업경쟁력 강화 지역인재채용활성화
정주여건	인재양성	규제완화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취업 잘되고 더 행복하게 사는 시대, 고졸 청년 성공시대

고등학교 졸업자 70%가 대학에 진학하는 학력인플레이션과 기업체에서 필요하는 산업인력(고졸)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고졸청년 성공시대 3대 인프라」를 실시한다. 첫째는 고졸 출신 취업자들이 각 지역 전략학과 대학에 입학해 지역대학 발전 이바지 및 기업 맞춤형 연구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대학등록금 전액을 무상 지원하는 것이다. 둘째, 취업 2년 후에는 고졸자와 대졸자 임금 격차를 보전하는 것으로 고졸 청년의 사회적 자립을 돕고 지역 정주를 확립하는 것이다. 셋째, 고졸 취업자의 군 복무기간 동안 경북도와 기업체가 기금 형식으로 매달 일정액을 적립해 군 복무 후 복귀하면 상여금을 지원해 기업은 우수 인력을 확보하고 청년 취업자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윈윈 솔루션이다.

지방 가 산다, 지방전성시대, K-로컬 7대 프로젝트

경북도는 서울이 지방을 쳐다보는 시대를 만들기 위해 K-로컬 7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앞서 말한 등록금 무상지원의 교육지원 혁명, 대기업 임금으로 보전하는 취업지원 혁명, 주거를 무료로 지원하는 주거지원 혁명, 그리고 결혼자금 융자지원하는 결혼지원혁명에 출산, 보육 돌봄으로 이어지는 완전돌봄 3대 패키지를 묶은 것이 K-로컬 7대 프로젝트이다. 지역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인재양성, 그 인재가 떠나지 않고 정주하는 경북의 지방시대를 기대한다.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경북,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도시

경상북도
주요정보

경북은 풍부한 문화자원과 천혜의 관광자원,
지역의 높은 문화적 역량을 바탕으로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세계적인
문화·관광중심지로 가꾸어 나가고 있다.

경북의 볼거리

스페이스워크 – 시간과 공간의 마법에 걸리다.

경북 포항 환호공원에 설치된 스페이스워크는 독일 함부르크 미술대학 학과장인 하이케 무터와 울리히 겐츠의 작품으로 포스코에서 제작 기부해 21년 11월 18일 준공되었다. 스페이스워크(Space Walk)는 우주선을 벗어나 우주를 유영하는 혹은 공간을 걷는 이라는 이중적 의미이며 루핑을 포함하는 작품의 형태는 공간 혹은 우주의 움직임을 표현했다. 높이 떠있는 곡선 형태의 작품을 걷는 행위는 공간 혹은 우주를 유영하는 경험으로 연결된다.

은어다리 – 칠흑같은 밤에 빛나는 두 마리의 은어

경북 울진 남대천 하류에 있는 은어다리는 산란철에 회귀하는 은어를 본따 만들었다. 낮에는 바닷가를 구경하고 돌아가는 길에 들러 은어다리가 반짝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야경을 구경하면 된다. 칠흑같은 밤 빛나는 두 마리의 은어 속을 걷다보면 마치 깊은 바다 용궁의 입구를 걷는 듯하다.

01
02

01. 스페이스워크(Space Walk)
02. 은어다리

울라 – 울릉도를 지키는 수호신

경북 울릉엔 고릴라가 산다(?). 울릉군 북면 추산리 일대에 산세가 수려하고 웅장한 경관으로 유명한 송곳산이 있다. 봉우리가 고릴라 형상인 이 곳에 '울라'를 캐릭터로한 테마공간이 조성되어 있다. 매해 겨울 울라윈터피크닉이 개최되며 눈꽃체험장과 감성 백패킹을 즐길 수 있다.

안동호 – 〈킹덤〉, 〈슈룹〉, 〈환혼〉 등 촬영 로케이션 명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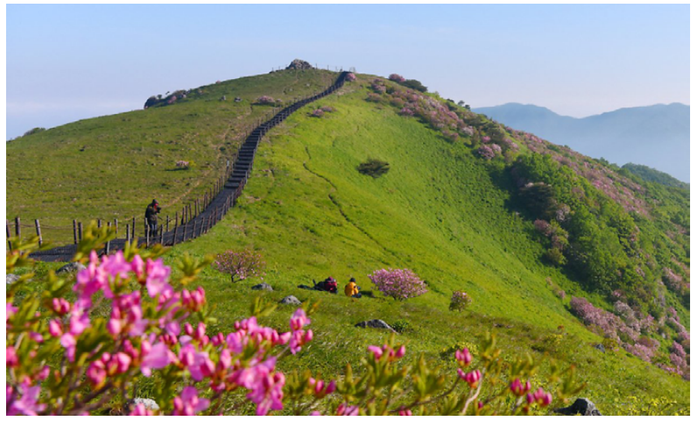
경북 안동의 안동호는 주민들의 생활 및 농공업용수 공급과 전력 생산을 위해 조성되어 연간 9억 2,600만 톤의 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안동호 위에 떠있는 선성수상길을 걷다보면 시원한 호수 바람과 물소리, 개구리 울음소리, 새들의 지저귐 소리가 마음을 편하게 해 준다. 최근 석동선착장 인근 해상촬영세트장에서 〈조선 정신과 의사 유세풍〉, 〈환혼〉, 〈슈룹〉 등의 드라마가 촬영되었다.

01
02

01. 울라
02. 안동호

축제와 문화행사

전국 최대 크기의 경상북도 – 4계절 내내 축제와 즐길 거리



봄) 봄이 되면 가장 빨리 핀다는 산수유, 의성에 산수유꽃피는마을에서 꽃축제가 열린다. 산수유광장에서 출발해 전시관과 전망대, 화곡지까지 걷다보면 봄내음을 물씬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좀 더 봄이 깊어진 5월이면 영주에서 철쭉을 만날 수 있다. 철쭉축제에서는 소백산 봉우리와 능선에 따라 피어나는 철쭉군락을 온오프라인에서 만날 수 있다.

여름) 매년 여름이면 경북의 동해안을 따라 25개나 되는 해수욕장이 개장된다. 영덕엔 해변길이가 8km에 이르는 고래불해수욕장과 장사상륙작전전승기념공원이 있는 장사해수욕장 등이 있고, 포항엔 이가리닻 전망대를 시작으로 오도주상절리와 환호공원, 그리고 영일대해수욕장을 거쳐 송도해수욕장까지 이어져 있다.

01

02

01. 영주철쭉제
02. 고래불해수욕장

가을) 도내 전체가 축제의 장이다. 국내 최대 천문대가 위치한 영천에선 보현산별빛축제, 마늘 최대생산지인 의성에선 의성슈퍼마늘축제, 전국 유일의 씨 없는 감이 생산되는 청도반시축제, 사과 최대 생산지 답게 청송과 문경·영주에선 사과축제, 그 밖에 칠곡 낙동강세계평화문화대축전, 안동 세계탈춤페스티벌 등이 펼쳐진다.

겨울) 백두대간협곡열차를 타고 산타마을로 떠나보자. 빨간색 지붕이 뒤덮인 산타마을에선 산타와 기념촬영을, 그리고 크루즈를 타고 울릉도로 떠나면 나래분지에서 눈꽃축제가 열린다. 초대형 울라와 기념촬영은 당신을 인스타의 핫스타로 만들어 줄 것이다.

01

02

01. 청송사과축제
02. 분천산타마을

2023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대회개요

기 간	2023. 4. 27.(목) ~ 4. 30.(일) [4일간] - 개회식 : 4. 28(금) 18:00, 구미시민운동장 ※경북 2013년 대회개최 이후 10년만 - 폐회식 : 4. 30(일) 16:00, 구미복합스포츠센터
장 소	경상북도 일원 (주 개최지 : 구미)
경기종목	43개 종목 (정식 40, 시범 3)
참가인원	60,000여 명 (시도 선수단, 관람객 등)
주최/주관	대한체육회, 경상북도 / 경상북도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추진방향

▶ 개·폐회식 및 경기장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점검으로 안전체전 도모

▶ 전 국민이 함께 참여하고 즐기는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추진상황

▶ 제101회 전국체육대회 경북 구미 유치 ('17. 5.)

▶ 체전 개최예정 5개 시·도* 대회순연 합의('20. 7.) * 경북·울산·전남·경남·부산

▶ 2021년 전국(장애인)체육대회 ('21. 10.)

▶ 2022년 전국소년(장애학생)체육대회 ('22. 5.)

시도 협조사항

▶ 2023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개회식(4.28.) 참석 및 선수단 격려

▶ 시·도선수단 참가 및 시·도민 홍보 등으로 대회 참여 분위기 조성

대회상징물

구호 : 새로운 경상북도! 행복한 대한민국!

엠블럼

- 대축전의 불꽃과 경북의 4대정신(화랑, 선비, 호국, 새마을)을 상징
- 경북과 구미의 영문이니셜 'G'를 상징
- 젊음과 변화의 상징 녹색과 더불어 청정자연의 백두대간을 상징
- 환동해 푸른파도를 상징
- 경북의 젖줄 낙동강을 의미

※ 밝은 미래를 향해 역동적으로 달려가는 경상북도의 모습을 형상화

마스코트

▶ '새바람 행복경북'을 모티브로 '대축전에 신선한 경북의 새바람을 일으켜 전국민 모두 행복해지는 대한민국' 의미

▶ 4갈래 불꽃은 경북의 4대 정신(호국, 선비, 화랑, 새마을)을 표현, 횃불은 대축전의 성공적 개최를 의미

▶ 마스코트 이름

① (새롬이) '새로운 경상북도'의 의미를 친근한 마스코트 이미지화. 젊음과 변화, 새로움을 상징하는 녹색으로 표현

② (행복이) '행복'의 의미를 마스코트로 친근하게 표현. 전 국민 행복 가득하길 기원하는 경북의 강한 열정을 붉은 하트로 표현

글로컬 이노베이터를 찾아서 경상북도 편

전재현 (협의회 대학생 서포터즈 9기)

새로운 지방시대에 걸맞은 기업,
SK실트론 장용호 대표를 만나다.

반도체는 첨단산업구조 체계 내에서 가장 핵심적인 분야다.
우리나라가 진정한 글로벌 1위 반도체 산업 국가로 자리를 잡기 위해선
반도체 생태계 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왜 구미인가?

경북 구미시에 위치한 SK실트론은 반도체 제조의 필수 소재인 실리콘 웨이퍼를 생산하는 회사로, 대한민국에서 반도체가 시작되는 곳이다. 웨이퍼는 전 세계에서 한국, 일본, 독일, 대만 등 4개국의 5개 기업에서 전체 시장의 94% 이상을 공급하고 있으며, SK실트론의 실리콘 웨이퍼 판매량은 약 18%로 글로벌 3위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주력 사업인 반도체용 실리콘 웨이퍼뿐만 아니라, 미래 성장 산업으로 전력반도체(SiC)용 웨이퍼, 통신 반도체(GaN)용 웨이퍼, 탄소 중립 시대에 맞는 저전력·고효율 열관리 소재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첨단 반도체 종합 소재 기업이다.

그렇다면 왜 하필 구미일까? 1980년대까지만 해도 구미는 반도체 산업의 중심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시 금성 반도체가 구미에 있었고, 웨이퍼 사업 역시 자연스럽게 구미에서 시작되었다. 그렇게 SK실트론은 구미 시민의 관심과 기대 속에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산증인으로 지금의 자리까지 오게 되었다.

경북을 대표하는 기업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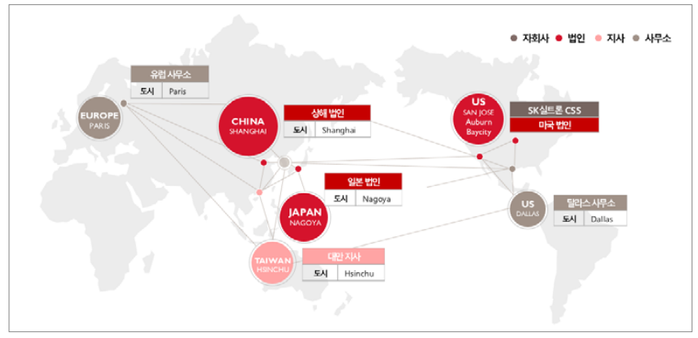
장용호 대표는 구미 인동 장씨로 경북 영주 풍기읍에서 태어났다. 대구 심인고를 거쳐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왔다. 그는 2015년 SK㈜ 투자부문장 재직 당시 AI, IoT, 5G 산업의 성장과 더불어 반도체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반도체 소재 사업에 주목했다. 반도체용 특수가스를 생산하는 SK㈜ 머티리얼즈와 반도체용 실리콘 웨이퍼를 생산하는 SK실트론 인수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SK그룹이 소재사업에 진출하는 것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장용호 대표는 2018년~2019년 SK㈜ 머티리얼즈 CEO를 거쳐, 2020년부터 SK실트론의 CEO로 재직 중이다. SK실트론은 구미에 공장이 있으며, SK㈜ 머티리얼즈 역시 경북 영주에 공장을 둔 기업이기에 경북을 대표하는 기업인이라고 할만하다.

실트론, 글로벌 기업으로 진화 중

대한민국 유일의 반도체용 실리콘 웨이퍼 제조기업인 SK실트론은 올해로 창립 40주년을 맞았다. 전 세계 3개 법인, 1개 지사, 2개 사무소를 통해 13개국 40여개 고객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고품질의 웨이퍼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창사 이래 사상 첫 6억 달러 수출의 탑을 수상했다. 지속적인 투자와 제조·기술·품질 경쟁력을 높여가며 꾸준히 성장했다.

2022년에는 사상 최고 매출을 기록하기도 했다. 그 결과 현재 글로벌 실리콘 웨이퍼 시장의 94%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4개국 5개 기업 중 하나로 300mm (12인치) 실리콘 웨이퍼 시장에서 3위를 점유 중이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 40년간 쌓아온 실리콘 웨이퍼 제조 기술력은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일찍이 인정받아 '국가핵심기술', '소부장 으뜸기업' 등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韓·美 양국 대통령이 모두 방문한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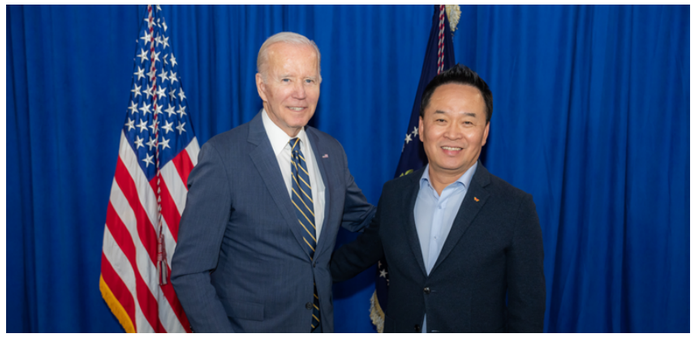
2022년 11월 29일, SK실트론의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행사가 개최되었다. 미국 자회사인 SK실트론CSS의 베이 시티(Bay City) 공장에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이 방문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8월 미국 반도체 지원법인 'CHIPS and Science Act' 법안 발효 이후 한국 반도체 기업의 미국 현지 투자 모범 사례로 SK실트론CSS*를 꼽으며 차세대 전력반도체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2년 5월 방한 당시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공장을 찾은 적은 있지만 미국 내 한국 공장을 방문한 것은 SK실트론이 최초 사례라고 한다.

올해 2월 1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SK실트론 구미 본사를 방문했다. 이날 SK실트론은 경상북도, 구미시와 함께 1조 2,360억 원의 반도체 웨이퍼 증설 투자 협약을 체결하며 향후 4년간 총 2조 3천억 규모의 투자를 확정했다. SK실트론에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은 수출의 20%를 담당하는 경제 버팀목이자 국가 안보 자산"이라고 격려했다.

양국 대통령의 줄이은 방문으로 SK실트론 구성원들의 사기 또한 한껏 올라가 있었다. 구미 시민들도 다 알고 있는 걸까. 택시를 타고 SK실트론으로 향하는 길에는 '반도체 특화 단지 구미', '실트론, 구미를 부탁해요' 같은 현수막이 구미 시내를 가득 메웠다. SK실트론이 웨이퍼 시장의 새로운 변화의 흐름을 선도해 나가기 위한 여정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체감하게 된다.

*SK실트론CSS : 美 DuPont 社 부터 인수한 SK실트론의 SiC 웨이퍼 (Silicon Carbide 웨이퍼, 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 자회사



ESG 경영의 선두에 서다

장용호 대표는 집무실에서 최근에 CDP(탄소 정보 공개 프로젝트, Carbon Disclosure Project) 한국위원회로부터 수여받은 상패를 손수 보여주며, 비상장사임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 대응과 물 경영 부문에서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최상위 등급을 획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위기 중 하나가 바로 '기후 변화'라고 말한다. SK실트론의 이해관계자들 역시 기업에게 환경 변화에 대응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그는 이제 기업의 지속가능한 생존을 위해서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고, 책임 있는 기업으로서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전 지구적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를 위해 실트론은 Net Zero 2040을 선언하고, RE100(Renewable Energy 100%)에 가입하여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해 노력 중이다.

SK실트론은 지속적인 에너지 감축과 용수 절감을 통하여 전 제품 탄소발자국 및 물발자국 인증을 획득했다. 그의 명함 한 쪽에는 LOWEST CARBON WAFER SUPPLIER(탄소를 가장 적게 배출하는 웨이퍼 공급사)라는 로고가 새겨져 있는데, 저탄소 웨이퍼 생산의 선두에 서는 기업이 되겠다는 그의 의지가 돋보인다.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장용호 대표는 청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며,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이루고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청년 세대의 상황이 힘들고, 미래도 그리 녹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힘들다고 시간을 허비하기에는 젊음이 너무 아깝습니다. 또한 미래는 준비하는 사람의 몫인 만큼 원하는 목표를 향해 꾸준히 노력한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라며 성공은 머리가 아닌 몸으로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In case of
Glocalism
in FRANCE

지방시대, 프랑스 편

김형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프랑스사무소 선임전문위원)

프랑스를『스타트업 네이션』으로 만드는
레지옹(광역) 정부
지역 특성 연계한 기술혁신 에코시스템 지원 사례

경제개발, 레지옹 정부의 태생적 분장 사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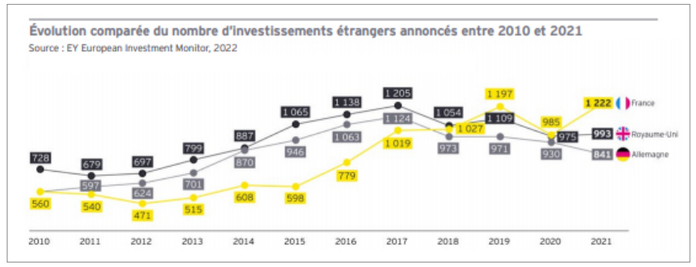
프랑스의 자치제도는 다소 복잡하다. 1982년 본격적으로 지방자치를 시행하면서, 다른 유럽 국가처럼 광역과 기초, 2개 자치 계층 대신에 기초(꼬뮌 Commune), 중역(데파트망 Département), 광역(레지옹 Région) 3단계 계층에 근간을 두고 시작했다. 각 계층의 자치권을 보장하다 보니 분장사무 중첩에서 오는 갈등도 빈번해지고 양자관계에서 해결책을 직접 모색하기보다 그때마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제3의 중재 기구를 만들다 보니, 메트로폴이다 꼬뮌공동체다 혼합단계자치조합이다 마치 중간 단계의 자치단체라도 되는 양 여러 종류의 새로운 기구들이 생겨났다. 그래서 프랑스 지자체 시스템을 일컬어 흔히 "밀푀유(Mille-feuille, 천겹파이)"라 부르면서 통폐합 통한 단순화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복잡성 속에도 자치 단계마다 분장사무의 중첩을 최대한 피할 수 있도록 제도적 노력을 지속해오고 있는데, 자치 단계 간 분장사무의 기본 성격을 서로 구분하고 법제도를 통해 세밀하게 권한을 배분하고 있다. 기초지자체는 도로, 교통, 청소, 건축허가 등 시민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근접행정 업무를, 중역지자체는 사회복지, 중등교육, 주요 지방도로와 같이 지역의 관리업무를, 그리고 광역지자체는 국토개발이나 경제개발, 직업교육과 같은 포괄적 계획 업무를 각각 담당하고 있다.

이렇듯 태생적으로 경제개발을 핵심 업무로서 권한을 부여받은 레지옹 정부는 각 지역의 특수성과 연계하여 지역사회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한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프랑스는 2020년 이후 유럽에서 기업투자 경쟁력이 제일 높은 국가로 손꼽히고 있다.

유럽 제 1의 투자 경쟁력, 스타트업 지원 우선 정책

글로벌 회계법인 EY에 따르면 코로나19 위기 이후 2021년 한 해 동안 5,877개의 국제기업이 유럽에 신규 입주했으며 이는 전년보다 약 5%가 증가한 셈인데, 이중 프랑스에만 1,769개 기업이 투자하여 전년보다 34%가 증가한 프랑스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졌다는 점을 알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동 보고서는 2022년까지 3년 연속 프랑스가 유럽 제 1의 경쟁력 우수국가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같은 우세 동향은 향후 2030년까지도 유지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프랑스의 경쟁력 증가세는 노조, 파업, 사회복지 등 기업활동에 발목을 잡기로 유명한 프랑스가 각종 규제를 철폐 또는 완화해가며 친기업 중심으로 개혁하고 있는 마크롱 대통령 정부의 노력이 뒷받침 되었다고 우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마크롱은 "스타트업 육성이 나라의 미래를 좌우한다"고 주장했을 만큼 프랑스를 "스타트업 네이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 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이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파리와 수도권 지역뿐만 아니라 지방마다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경쟁력 있는 에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국가 전체가 성장 동력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여기에는 지역의 경제개발 지원 주체인 레지옹 정부의 공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2019년 이전까지만 해도 프랑스 전체 스타트업 펀딩 총액의 약 80% 이상이 파리와 수도권에 집중되어 왔다. 각 지방정부마다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지역의 잠재성을 개발하는 것이 진정한 "스타트업 네이션"으로 발돋움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감지한 정부의 노력이 보태져서 2021년의 경우 프랑스 정부가 선정하여 지원하는 프렌치 테크(French Tech) 라벨을 부여받은 스타트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수도권 이외 지방에서 선정되었을 만큼 지방의 기술개혁 분야 성장이 활발해졌는데, 여러 레지옹 정부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스타트업 지원 사례 몇 가지를 아래 정리해 보고자 한다.

오베르뉴-론-알프 레지옹 "Start-up & Go"

오베르뉴-론-알프 Auvergne-Rhone-Alpes 레지옹은 수도권 일드프랑스 다음으로 스타트업이 활발한 지역이다.

전통적으로 산업이 발달한 리용, 그르노블, 클레르몽-페랑, 샹베리, 안시 등 큼직한 도시들이 소재해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레지옹 정부가 일찌감치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전개해 왔기 때문에 오늘날의 에코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었다.

대표적인 정책인 "스타트업 앤 고" 제도는 2010년부터 시작되었는데,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스타트업을 아이디어 구상 단계부터 사업 모델링, 펀딩, 프로토타입 제작, 시장 진출, 피드백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을 밀착 지원해주는 일련의 프로그램이다. 2010년부터 지금까지 1,362개의 프로젝트에 대해 3천 5백만 유로를 지원했으며, 1개 스타트업에 대해 1년간 최대 11,000유로까지 직접적인 재정지원이 가능하고 이는 스타트업 지출 실비의 80%까지 충당이 가능한 금액이다.

리용-보스톤 연계한 Big booster 프로그램

오베르뉴-론-알프 레지옹이 리용 메트로폴과 협력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Big Booster 프로그램 역시 지역 스타트업 활성화에 큰 원동력이 되었다.

혁신분야 스타트업 개발자에게 스타트업의 본고장 미국 보스톤에서 개최하는 "Mass Challenge"에 참가하여 인큐베이팅 과정을 통해 미국과 세계의 에코시스템을 경험케함으로서 보다 경쟁력있는 스타트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리용시와 오베르뉴-론-알프 레지옹은 매년 100여 스타트업을 선정 2개월간 부트 캠프를 통해 20개 후보를 선정하여 보스톤에 파견 매스 챌린지에 참여하여 4개월간의 인큐베이팅 끝에 최종 선정되는 3개의 스타트업에 약 10만유로를 부상으로 지원하게 된다.

※상세 내용 : 협의회 국제화정보 DB 2015.12.31. "국제교류 접목한 기업체 창업지원 사례 - 프랑스 리용 Big Booster" 기사 참조

[미국 보스톤의 Mass Challenge]

- ▶ "스타트업의 올림픽" 이라 불리는 세계 최대규모 창업경진대회
- ▶ 오바마 미 대통령이 "벤쳐 육성을 위한 최고의 프로그램"이라 극찬할 정도로 멘토링부터 투자까지 완벽한 지원이 뒷받침 됨
- ▶ 전 세계에서 2,000여개 창업 기업 참가, 120개 기업 1차 선정 후 4개월간 전문적인 멘토링을 받으며 실적 레이스 진행, 10~20개 기업 최종 선정 우승상금 150만 달러 시상

지역 36개 스타트업 라스베이거스 SES에 전시

오베르뉴-론-알프 레지옹의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23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진행한 SES 박람회에 지역 36개 스타트업의 출품 전시가 이뤄졌고 그중 30개 기업은 직접 현장에서 홍보 판촉 활동을 벌이기도 했는데 이는 전체 프랑스 출품 기업의 1/5이 넘는 숫자이다.

누벨-아키텐 레지옹 가장 세분화된 재정지원제도 운용

누벨-아키텐 레지옹은 보르도, 라로셸, 뿌아띠에, 앙굴렘, 리모쥬 등의 거점도시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으로 스타트업 분야 신흥 강자로 떠오르고 있다. 누벨-아키텐 레지옹은 스타트업의 발전 단계별로 지원 성격별로 수요를 세분화하여 각각 독립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어서 스타트업 창업자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 ▶ Faisabilité Start-up (지원금) 아이디어 가능성 분석 지원금
- ▶ Pass Start-up (지원금) 스타트업 창업지원 패스
- ▶ Investissement Start-up (레지옹 담보 융자) 스타트업 활동전개, 시설투자 등에 필요한 재원확보 지원
- ▶ Innovation Start-up (레지옹 담보 융자) 혁신분야 스타트업 재정 확보 지원제도
- ▶ Expertise Start-up (지원금) 기술혁신 분야 스타트업 신기술 접근 용이토록 재정지원
- ▶ Aides au recrutement et à la formation Start-up (사회보장 분담금 경감) 스타트업 인력 채용과 교육훈련에 따른 사회보장비 부담 감면 또는 경감 제도

프랑스 유니콘 스타트업 다수 지방으로 이전 추세

프랑스에서는 기업가치 10억 유로 이상의 비상장 스타트업을 유니콘 기업으로 구분하는데 2023년 1월 현재 전국에 26개가 분포되어 있다. 그중 절반 이상은 본사를 파리와 수도권 지역에 두고 있으나, 최근들어 특히 코로나 이후 삶의 질 높은 지방으로 이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현재 유니콘 기업 중 제 1의 기업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Doctolib이란 스타트업이 대표적인 예인데, 파리 인접한 르발루아시에 있던 본사를 루아르 지방 낭트시로 이전을 결정하여 2024년까지 시설 공사를 마치고 2025년 초 준공할 계획이다. 프랑스 통계청 집계에 따르면 프랑스 전국에 약 1백 50만 개의 기업이 스타트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스타트업 에코시스템의 생리상 60~75% 정도가 성공하지 못하고 사멸하지만 그중 정부로부터 프렌치 테크 라벨 인정을 받은 스타트업의 2022년 연 매출총액이 135억 유로에 달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할 때 프랑스 경제 구조에 있어 스타트업의 중요성은 더없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린테크, 딥테크, 아그리테크 지역 특성에 맞는 분야별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프랑스 전국의 레지옹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고안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이같은 노력은 앞으로도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지방시대, 일본 편

이광영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일본사무소 서기관)

기업간 연계로
〈베니이모(자색고구마) 카레〉개발
– 코로나 팬데믹의 곤경속에서 탄생한 신상품
(오키나와현(沖縄県)

지역자원이 풍부한 보물의 섬, 오키나와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많은 섬들이 산재해 있는 도서(섬)현으로 전통문화와 아열대기후 고유의 식물이나 동물, 열대어와 산호가 있는 바다 등의 관광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본토와는 다른 공기감이 감돌고 푸른 바다, 흰 모래해변 등 리조트 분위기를 찾아서 국내외 많은 관광객이 방문, 2018년에는 1,000만 명을 넘는 관광객이 찾았다.
또 지역만의 사탕수수, 고야(여주나물), 망고, 파파이야, 모즈쿠(큰실말), 아구돼지(오키나와 고유 재래돼지) 등의 농축산물이 있으며 전국적으로도 특산품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 많아 지역자원이라는 보물이 풍부하게 존재한다.

〈베니부타(紅豚홍돈)〉등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여러 특산품을 개발

오키나와에는 지역 자원을 활용한 특산품을 만드는 기업도 적지 않다. 특산품으로 흑설탕, 오키나와 소바(오키나와 면요리), 아와모리(오키나와 전통술), 고야차(여주나물 차), 화장품 등이 있으며, 오키나와고텐(오키나와 특산품 판매점)에서도 요미타촌(読谷村) 등에서 수확되는 자색 고구마의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베니이모(자색고구마) 타르트 과자를 제조하고 있어, 지금은 오키나와 선물의 대표상품이 되었다.
또한 오키나와의 요리에는 돼지고기를 많이 사용하여 요리에 사용하는 재료로서 양돈업이 활발하며 또한 식용용으로 소의 사육도 활발하여 독자적인 명품 돼지와 명품 소의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그 중 육질 향상을 위해 자색 고구마를 함유한 오리지널 배합사료로 키운 명품 돼지 베니부타(紅豚)가 있다. 이와 같이 오키나와에서는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상품개발이 성행하여 오키나와 현지를 비롯한 전국으로부터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

지금까지 관광객 수가 상승함과 함께 리조트호텔, 관광관련시설, 음식점, 기념품점 등은 실적이 증가하여 관광업은 오키나와를 이끄는 산업으로서 현의 경제를 견인해 왔다. 그러나 2020년에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대됨과 동시에 오키나와도 예외 없이 그 영향을 받아 관광객수가 약 373만 명(전년대비 63.2% 감소, 오키나와현 자료)으로 국내 관광객의 대폭적인 감소는 물론 인바운드 관광객은 전무한 상황이 되었다.
관광객을 대상으로 실적을 늘려온 관광업은 그 여파로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실적이 악화되고 오카시고텐(특산품 판매점)도 관광객에 의존하는 기업이었던 만큼 경영 상태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베니이모 타르트는 농가가 소중하게 키워온 자색 고구마가 주원료로 농가와의 신뢰관계도 있어 여태까지와 마찬가지로 농가에서 들여오는 자색 고구마를 모두 사입 하였지만, 자색 고구마는 일단 페이스트로 가공하여 자사 냉동고에서 보관하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에서는 냉동고가 금방 가득 차버려서 외부에 따로 냉동고를 빌리게 되었고, 이에 따른 임대료, 전기요금 부담이 더욱 경영을 압박하는 상황이 되어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베니이모 활용으로 지역 기업 3사가 연계

재고 과잉이 된 베니이모 페이스트는 유통기한이란 문제도 있어 버려질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현 내외의 식품 제조회사에 판매도 하였지만 그 회사들이 사 줄 수 있는 양에도 한계가 있었다.
그때 어떤 사원이 지역 특산 카레로 인스턴트〈베니이모 카레〉를 개발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이 있었다. 그러나 단순히 카레에 베니이모 페이스트와 베니이모를 넣는 것만으로는 임팩트가 약했기 때문에 페이스트에 고기 재료를 더하게 되고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이 후보로 올라와서 어느 식재료로 할지 망설이고 있던 중, 요미타촌(読谷村)에서 〈베니부타(홍돈)〉의 고기를 판매하는 기업을 알게 되고 그 기업은 판로 전개에 과제를 안고 있었다. 베니이모라는 연결 고리로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베니부타〉고기를 활용하고 싶다는 부탁을 하였더니 흔쾌히 들어주었다.

그림 1) 니이모(자색 고구마) 카레

베니이모 카레의 재료는 갖추어졌지만, 자사에는 인스턴트 식품을 제조하는 노하우가 없어서 그런 노하우를 가진 기업을 찾을 필요가 있었다. 그 무렵 소속되어 있던 오키나와현 중소기업인 동우회의 회원으로 인스턴트 식품을 만들 수 있는 기업이 있으며, 새로운 식품 개발을 찾고 있었기에 공동으로 베니이모와 베니부타를 이용한 베니이모 카레 개발을 시작했다.
베니이모 카레는 자색 고구마 페이스트의 재고를 안고 있던 오카시고텐사(社)와 베니부타의 재고를 안고 판로 확대를 검토하던 식육판매업의 (주)강쥬, 새로운 수탁제조를 모색하고 있던 ㈜쇼쿠노 가케하시 컴퍼니에 의해 각 사가 안고 있는 과제 해결을 위해 3사가 연계하여 베니이모의 새로운 활용 방법으로 탄생한 상품이 되었다.

향후에 대한 기대

베니이모 카레 개발에 있어서는 지역 분들에게 상황을 잘 설명하고 지역으로부터 많은 협조를 받게 되었고 지금은 스테디셀러 상품이 되었다.

그림 2) 〈베니이모 카레〉개발 연계도

기업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상황을 그 지역 분들에게도 알려서 지역의 이해와 함께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지역에는 각각의 강점을 가진 기업이 있으며 어떤 과제가 표면화되었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노하우를 가진 기업 정보를 재빨리 입수해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림 3) 현청에서 〈베니이모 카레〉를 프로모션 하는 3사 대표들

이번에는 가까운 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기업이 존재하고 있었지만, 과제 해결을 위해 광역에서 매칭을 실시할 수 있는 구조가 있으면, 다양한 주체와 연계해 나가는 것이 가능해 과제 해결의 지름길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그림 4) 코로나팬데믹의 영향으로 쌓여있는 베니이모(자색고구마) 페이스트 재고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자체 지역에 존재하지 않는 구조나 인프라를 제공받아 과제 해결을 위한 연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방시대, 중앙정부 정책동향

박관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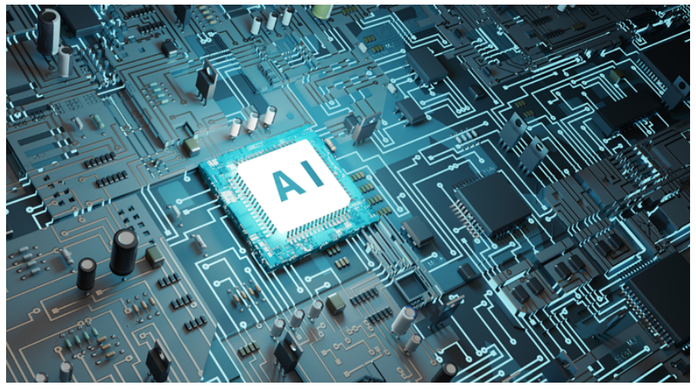
新성장 4.0 전략
'23년 추진계획 및 연도별 로드맵

지난 2월 20일 기획재정부장관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는 「新성장 4.0 전략 '23년 추진계획 및 연도별 로드맵」을 의결하고 발표하였다. 본 글은 지난해 12월 21일에 발표된 정부의 「新성장 4.0 전략」의 실효적 추진을 위해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들이 2023년에 추진할 '新성장 4.0 전략' 15대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과 일정 등을 소개한다.

배경 및 경과

정부는 지난 해 12월 21일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개최하고 「新성장 4.0 전략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新성장 4.0 전략은 우리나라가 초일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민간 중심의 체계적 성장전략이 필요하다는 문제인식에서 출발한 것이다. 이에 따라 주요 전략을 ①미래기술 확보 ②디지털 전환 및 ③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등 3개 분야로 설정하고, 분야별로 5개씩의 프로젝트(전체 15대 프로젝트)를 선정하였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지난 2월 20일에 '비상경제장관회의'가 개최되었고, 그 이후에 「新성장 4.0 전략 '23년 추진계획 및 연도별 로드맵」이 발표되었다. 이 추진계획 및 로드맵은 新성장 4.0 전략을 구체화하는 기본방향과 2023년도에 추진할 15대 프로젝트별 주요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新성장 4.0 전략 구체화 기본방향

新성장 4.0 전략을 구체화하는 기본방향은 두 가지로 정립되었다. 하나는 '도전과제 해결을 위해 프로젝트별 목표, 추진방식 등을 구체화'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新성장 4.0 프로젝트를 중점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정비 본격화'이다.

프로젝트별 목표, 추진방식 등 구체화

新성장 4.0 전략의 성공은 도전과제의 해결에 달려있다. 도전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전략의 구체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15개 프로젝트별 목표, 추진방식 및 재원 등을 명확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목표, 추진방식 및 재원의 구체화를 위한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목표'는 체감 가능한 성과 창출을 위해 도전적 목표(성과 지표)를 설정한다. 특히, '우주탐사' 등과 같이 중장기 관점에서 추진이 필요한 프로젝트는 중간 목표를 정하고 성과를 점검하며 추진한다. 둘째, '추진방식'은 프로젝트의 기획 단계부터 민간의 아이디어와 역량에 기반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이를 위해 프로젝트별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한다. 민관협의체는 민간전문가와 관계부처 국장이 공동 프로젝트 관리자(PM)가 되고, '우주탐사'와 '탄소중립도시 조성' 등과 같이 정부가 주도하는 프로젝트에도 민간 영역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한다. 셋째, '재원'은 민간재원을 원칙으로 하되, 공공재정이 필요한 경우에 적극 투입한다. 민간의 풍부한 재원이 프로젝트 추진에 투입될 수 있도록 기술표준 선점과 제도의 정비 등을 통해 민간의 투자 애로 사항을 적극 해소해 나간다. '첨단 물류센터 구축' 등과 같이 사회기반시설에 해당하지만 사용료 수입 등으로 투자비 회수가 가능한 경우는 민간투자사업(민자사업)으로 추진을 적극 검토한다. 다만 민간의 자생적 추진이 어려운 경우 또는 민관 공동투자로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경우 등 재정이 필요한 분야에는 공공재정을 적극 투입한다.

인프라 정비 본격화

新성장 4.0 전략 15대 프로젝트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 R&D, 인재, 글로벌협력 및 규제 등 5개 분야 인프라를 본격적으로 정비한다. 첫째, 금융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운영하는 205조원의 정책금융이 新성장 4.0 전략 프로젝트에 중점 공급되도록 하고, '혁신성장 공동기준'에 新성장 4.0 프로젝트와 관련한 품목이 반영되도록 한다. 둘째, 新성장 4.0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한 R&D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속히 처리하는 패스트 트랙(fast-track) 도입이나 면제 등을 검토하고, R&D 지원 비율을 현행 50% 수준에서 75% 수준까지 상향하여 특화된 지원체계를 정립한다. 셋째, 15대 프로젝트의 추진에 필요한 인력수요를 반영하여 인재양성 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항공우주, 미래 모빌리티, 바이오헬스, 첨단부품·소재 및 환경·에너지 등과 같은 첨단분야별 인력양성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넷째, 아랍에미레이트(UAE) 등과 같은 해외 투자 설명회 등에 新성장 4.0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홍보를 추진하고, 해외 프로젝트에 대해 원팀코리아를 구성하여 수주를 지원한다. 끝으로 15대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제도를 선제적으로 만들거나 기존 규제를 대폭 개선한다. 특히 모빌리티, 에너지, 관광, 미디어·콘텐츠 및 바이오헬스 등과 같이 테마별로 핵심 규제를 혁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新성장 4.0 전략과 관련한 부문에 최우선으로 적용한다.

〈표 1〉 新성장 4.0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인프라 정비 방안

금융	▶ '23년 정책금융(205조 원) 중점 자금공급 분야로 新성장 4.0 프로젝트 선정(금융위) ▶ '혁신성장 공동기준'에 新성장 4.0 프로젝트 관련 품목 반영
R&D	▶ 新성장 4.0 프로젝트 R&D의 신속 추진을 위해 예타 Fast-track, 예타면제 등을 검토하고, R&D 지원비율상향(예: 50→75%) 등 특화된 지원체계 마련
인재	▶ 프로젝트 추진에 필요한 인력수요 등을 반영하여 첨단분야별* 인재양성 방안 수립 * 항공·우주·미래 모빌리티, 바이오헬스, 첨단부품·소재, 환경·에너지 등
글로벌 협력	▶ 對UAE 투자 설명회 등 계기에 新성장 4.0 프로젝트도 포함하여 홍보 추진 ▶ 핵심 프로젝트별 원팀 코리아를 구성하여 수주지원 본격화
규제	▶ 新성장 4.0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선제적 제도 마련, 규제개선 중점 추진 → 테마별 핵심규제 혁신방안* 마련 시 최우선 반영 * 모빌리티, 에너지, 관광, 미디어·콘텐츠, 바이오헬스 등

15대 프로젝트별 2023년 주요 추진사항

정부는 15대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과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2023년도에 30개 이상(30개+α)의 주요 대책을 마련하고 발표하고, 세부 과제별로 별도의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구체화시켜 나갈 것이다.

미래분야 개척

「미래분야 개척」은 '미래형 모빌리티,' '우주탐사,' '양자과학기술,' '미래의료 기술,' 및 '에너지 신기술' 등 5대 프로젝트를 포함한다. 각 프로젝트는 2023년도에 3-4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미래형 모빌리티' 프로젝트는 2030년에 UAM을 상용화하고 2035년에 자동차의 완전 자율주행을 대중화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미래형 교통(이동수단)을 조기에 상용화하기 위하여 2023년에는 ①민간기업 등이 참여하는 UAM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②자율주행을 위해 C-ITS(이동통신기업 등 16개 기관 참여) 통신방식을 연내에 결정하고 인증제도를 마련하며, ③53개 관련기관이 공동으로 3,400km의 정밀도로지도를 구축하여 데이터와 정보의 공유·확산을 촉진하고 데이터 기반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을 강화한다.

'우주탐사' 프로젝트는 10년 후(2033년)에 달착륙선 개발을 목표로 ①연내에 우주항공청을 개청하고, ②누리호 3차 발사('23년 6월) 등 대형 우주탐사 프로젝트를 시작하며, ③공공기술의 민간이전 등을 통해 민간의 종합기업을 육성한다.

'양자과학기술' 프로젝트는 2030년까지 500큐비트 이상의 양자컴퓨터 개발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①연내에 20큐비트 양자컴퓨터를 시연하고, 50큐비트 양자프로세서(CPU)의 개발을 추진하고, ②민관 협업으로 수소에너지 신소재 개발에 특화된 양자시뮬레이터의 개발에 착수하며, ③초기 시장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양자센서 시작품(고선명도 양자 현미경, 배터리 불량 검출용 양자센서 등) 개발에 착수한다.

'미래의료 기술' 프로젝트는 2030년까지 첨단재생의료치료제를 3건 개발하고, 2025년까지 디지털치료·재활기기를 5건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2023년에는 ①민간 중심으로 필수예방접종제 등 83개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착수하고, ②공황장애와 난청 등의 치료를 위한 디지털치료·재활기기 개발을 위해 2건의 임상·허가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며, ③860여개 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정보 고속도로(마이헬스웨이)를 개통하여 종합병원과 거주지 의료기관 간의 의료데이터 활용과 실증을 추진한다.

'에너지 신기술' 프로젝트는 혁신형 원자력, 태양광, 청정수소 및 해상풍력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2023년에는 ①SMR 및 MSR 연구개발에 추진하고, ②태양광 에너지 부문의 탠덤 셀 모듈 공정기술과 전지 양산을 위한 핵심장비 개발에 착수하며, ③수전해 수소생산기지 2개를 선정하고, 청정수소 생산기술 연구에 착수하며, ④부유식 해상풍력 구조물 설계기술의 개발에 착수한다.

〈표 2〉 미래분야 개척 분야, 프로젝트별 2023년 주요 추진사항

미래형 모빌리티	▶ UAM 개활지 실증('23. 8~) ▶ C-ITS 통신방식 연내 결정 ▶ 정밀도로지도('23년 3,400km) 구축 등 추진
우주탐사	▶ 우주항공청 개청('23. 말) ▶ 누리호 3차 발사('23. 6) 등 대형 프로젝트 추진 ▶ 민간 우주산업 육성 등 우주개발 추진

양자 과학기술	▶ 20큐비트 양자컴퓨터 조기 시연('24. → '23. 下) ▶ 양자시뮬레이터 개발 착수('23. 4) ▶ 양자센서 시작품 개발 착수('23. 4)
미래의료 핵심기술	▶ 백신·치료제 R&D 추진('23. 83개 신규) ▶ 디지털 치료기기 임상·허가 가이드라인 2건 개발 ▶ 건강정보 고속도로 개통('23. 6)
에너지 신기술	▶ 원전 기술(SMR·MSR) ▶ 태양광 탠덤 셀 기술 ▶ 청정수소 생산기술 ▶ 해상풍력 구조물 설계기술 등 개발 착수

디지털 에브리웨어(Digital Everywhere)

새로운 일상생활을 위한 「Digital Everywhere」는 '내 삶 속의 디지털,' '차세대 물류,' '탄소중립도시,' '스마트농어업,' 및 '스마트 그리드' 등 5대 프로젝트를 포함한다.

'내 삶 속의 디지털' 프로젝트는 데이터 인프라, 인공지능(AI) 및 네트워크 분야의 혁신과 성장을 지향하며 2023년에는 ①국산 AI반도체를 활용하여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 실증을 추진하며, ②AI 일상화를 통해 민생현안을 해결하고, 챗GPT와 같은 혁신 서비스 개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③의료, 제조, 교육 및 문화 분야 이외에 4개 분야의 5세대(5G) 특화망 모델을 개발하고, 6세대(6G) 통신·인프라 개발을 가속화한다.

'차세대 물류' 프로젝트는 로봇('26년)과 드론('27년)을 통한 배송을 상용화하고, 400개의 스마트 물류 센터를 구축('32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23년에는 ①차세대 물류서비스 구축과 콜드체인 등 정착과 상용화를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②국내 최초로 완전자동화된 항만(부산 신항 2~5단계)을 개장하고, 도심의 물류용지를 확보한다.

'탄소중립도시' 프로젝트는 2030년까지 넷-제로 도시(net-zero city) 10개를 조성하기 위하여 2023년에는 ①10개 대상 지역을 선정하고, 지역별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②환경친화적 농촌을 구형하기 위해 농기계·시설 등 에너지 효율화 방안을 마련한다.

'스마트 농어업' 프로젝트는 스마트 온실 사업화와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2023년에는 ①민간 주도로 수직농장과 스마트온실 사업모델 마련에 착수하고, ②연내에 푸드테크육성법을 제정하고 대체식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며, ③스마트양식 클러스터 1개를 준공하고 2개소 조성사업을 착공한다.

'스마트 그리드' 프로젝트는 공공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과 지능형 전력계량 인프라(AMI) 구축 및 마이크로 그리드 모델 정착을 위한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조성(27년 500개소 이상)을 목표로 하며, 2023년에는 ①신남원 등 6개 변전소에 ESS 구축, ②단독주택 등 500만호와 아파트 등 66만호에 지능형 전력계량기를 보급하며, ③기존 주요소의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전환과 확산을 위한 규제개선 등을 추진한다.

〈표 3〉 디지털 에브리웨어 분야, 프로젝트별 2023년 주요 추진사항

내 삶 속의 디지털	▶ 국산 AI반도체 활용 데이터센터 구축('23. 4~) ▶ AI 일상화 프로젝트 추진('23. 6) ▶ 5G 특화망 모델 4종 추가발굴('23. 3~)
차세대 물류	▶ 로봇('26)·드론('27) 배송 상용화를 위한 제도 정비 ▶ 국내 최초 완전자동화 항만 개장('23. 下) 등 인프라 구축
탄소 중립도시	▶ Net-Zero City 대상지 10개소 선정('23. 9) 및 추진전략 마련('23. 12) ▶ 농촌 에너지 효율화 방안 마련('23. 12)
스마트 농어업	▶ 수직농장·스마트온실 사업모델 마련 ▶ 푸드테크 시장 확대 위해 제도 마련* ▶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준공 1, 착공 2)
스마트 그리드	▶ 공공 ESS 구축('23) ▶ 주택 등 500만호, 아파트 66만호 AMI 보급('23) ▶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확산 위한 규제개선('23~)

경쟁을 넘어 초격차 확보

「경쟁을 넘어 초격차 확보」는 '전략산업,' '바이오 혁신,' 'K-컬처 융합관광,' '한국의 디즈니 육성,' 및 '빅딜 수주 릴레이' 등 5대 프로젝트를 포함한다.

'전략산업 No.1 달성' 프로젝트는 반도체, 이차전지 및 QD-LED 등과 같은 전략산업의 경쟁우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에는 산업(기술)별 투자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투자세액공제, 인허가 타임아웃제, 아카데미 신설, 펀드 조성 및 국가전략기술 지정 등이 적기에 이행되도록 지원한다.

'바이오 혁신' 프로젝트는 바이오 데이터뱅크 구축('32년 100만 명 모집)과 K-바이오 랩 허브 구축(신약개발 스타트업 60개 기업 육성) 등의 목표롤 설정하여 추진하며, 이를 위해 2023년에는 ①바이오 파운드리와 데이터 뱅크를 구축하고, ②K-바이오 랩허브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설계를 개시하며, 의과학자 양성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K-컬처 융합 관광' 프로젝트는 전국적으로 K-관광 휴양벨트를 구축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여 2023년에는 ①남부권 휴양벨트 3곳을 조성하고, ②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한국형 칸쿤 마스터플랜(27년 착공)의 수립에 착수하며, ③청와대 권역 관광자원화를 위해 팸투어 등을 운영한다.

'한국의 디즈니 육성' 프로젝트는 방송·영상·웹툰·출판·K-팝 등과 관련한 지식재산(IP) 융복합 틀러스터 및 콘테츠 펀드 등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목표 달성을 위해 2023년에는 ①IP융복합 클러스터와 특수영상 클러스터 등의 첨단 제작 인프라 설계에 착수하거나 완료하고, ②민간과 공동으로 콘텐츠 펀드(4,100억 원)를 결성하며, ③제4차 문화기술 연구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차세대 콘텐츠 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예비 타당성조사의 추진을 기획한다.

'빅딜 수주 릴레이' 프로젝트는 '원팀 코리아'를 통해 해외건설, 방산 및 원전 분야의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하여 수출 돌파구를 마련하고, 2027년 해외 수주액 500억 달러 목표 달성을 추진하며, 특히 민군 합동으로 방위산업 R&D 확대와 스마트 물류와 스마트 시티 등의 해외건설 패키지 수주를 추진한다.

〈표 4〉 경쟁을 넘어 초격차 확보 분야, 프로젝트별 2023년 주요 추진사항

전략산업 No.1 달성	▶ 투자 프로젝트 및 차세대 기술개발 적기 이행 지원 * ('23년 투자 프로젝트) 반도체 47조 원, 배터리 8조 원, 디스플레이 14조 원 등
바이오 혁신	▶ 바이오 파운드리, 바이오 데이터뱅크 구축(예타중) ▶ K-바이오 랩허브 계획 수립('23. 上) ▶ 의사과학자 양성 확대('23~)
K-컬처 융합 관광	▶ K-관광 휴양벨트 선도사업(3건) 추진 ▶ 한국형 칸쿤 마스터플랜 수립 착수 ▶ 청와대 권역 관광상품 운영('23. 4~)
한국의 디즈니 육성	▶ 첨단 제작 인프라 설계 ▶ 콘텐츠 펀드 조성('23년 4,100억 원) ▶ 차세대 콘텐츠 기술 R&D 추진
빅딜 수주 릴레이	▶ '원팀코리아' 통해 해외건설·방산·원전 분야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하여 수출 돌파구 마련

향후 추진계획

정부는 지난 2월 20일 발표한 「新성장 4.0 전략 '23년 추진계획 및 연도별 로드맵」의 후속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신속한 성과창출을 위해 기획재정부 1차관이 주재하는 '신성장전략 TF'를 구성하여 프로젝트별 대책을 발표한다. 프로젝트와 세부사업은 범부처 협업방식으로 기획되고 추진하며, 민간 주도와 참여를 활성화하여 성과를 창출한다. 특히 민간 부문의 현장 요구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재정 투자와 관련하여 「新성장 4.0 전략」에 해당하는 프로젝트의 예산은 2024년 예산안에 우선 반영한다. 특히 파급효과가 크고 민간 수요와 참여가 높은 사업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반영하고, 대규모 R&D, 인프라 구축 사업 등에 대해서는 신속한 예비타당성 심사를 통해 민간의 투자계획 수립과 집행에 공공재정이 뒷받침하도록 할 계획이다.

보다 상세한 내용과 2027년까지 프로젝트별 로드맵은 관계부처합동(2023). 「新성장 4.0 전략 '23년 추진계획 및 연도별 로드맵」에서 확인할 수 있다.

편집후기

월간 지방시대는 시도지사가 생각하는 지방시대란 무엇인가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루며, 지방시대를 위해 시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사례 및 지방시대의 토대를 닦고 세계로 나아가고 있는 인물을 찾아 소개한다. 또한 타 국가의 최신 정보 및 우리나라의 중앙정부 정책동향을 시의성 있게 제공하고 있다.

2023년 3월호는 '경상북도'편으로 구성, 제작되었다.
『시도지사의 지방시대 칼럼』에서는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의 지방시대에 대한 생각과 고민 앞으로 포부에 대해 들어본다.

『지방시대 정책우수사례』에서는 도내에 기업이 투자를 결정하는 시점부터 기업이 필요인력을 제시하고 공장 준공단계에 맞춰 맞춤인력을 제공하는 "지역산업 인재양성체계 구축"에 대한 정책을 자세히 소개한다.
『경상북도의 주요정보』는 전통과 현대가 어르러진 경북의 스페이스워크, 은어다리, 울라, 드라마 촬영 명소인 안동호 등 다양한 볼거리와 전국 최대, 4계절 내내 즐길 수 있는 꽃 축제, 별빛축제, 사과축제, 산타축제 등의 대중행사를 소개하고, 4년만의 정상 개최되는 '2023년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을 홍보한다.

『글로컬 이노베이터를 찾아서』에서는 경상북도 구미에 위치한 대한민국 유일의 반도체용 실리콘 웨이퍼 제조 기업이며 지방시대와 탄소중립 시대에 걸 맞는, 글로벌 기업으로 진화중인 SK실트론의 장용호 대표를 인터뷰 하였다.
『지방시대 해외정보』는 프랑스를 스타트업 네이션으로 만드는 레지옹(광역) 정부 사례 및 기업간 연계로 베니이모(자색고구마) 카레를 개발한 일본의 오키나와현 사례를 싣는다.

마지막으로 『지방시대, 중앙정부 정책동향』은 지난해 12월 21일 발표된 정부의 新성장 4.0전략의 실효적 추진을 위해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들이 2023년에 추진할 〈新성장 4.0 전략 15대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과 일정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월간 지방시대는 시도지사와 시도의 홍보창구 역할을 하기 위해 매월 특정시도의 특별판으로 기획되어 시도, 국회, 중앙정부, 국민 등에게 제공된다.
4월호는 "대전광역시"편으로 제작된다.

지속가능 "지방정부" 실현

| 발행일 2023년 3월 10일(제103호)
| 발행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이철우 **| 편집**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홍보교육부
| 주소 03186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49 광화문빌딩 12층 **| 문의** 02-2170-6092